

# 독거노인 집에 불나면 119 자동 연결...장비 10만대 보급

### 보건복지부, 2008년 기준 장비 노후화돼 오작동 잦아 다양한 감지기들 24시간 활동·호흡·수면시간 등 확인 비대면 돌봄 가능...2022년까지 30만명까지 보급 계획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 화재나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에 알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택내장비 10만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택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했다. 20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택내장비는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

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이 있었다. 차세대 택내장비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택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택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10만대를 설치하고 2021년 누적 20만명, 2022년 누적 30만명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차매 또는 차매고위험군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주민센터나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택내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 강진군·군동면새마을협의회, 복지기동대 출동 취약계층 7가구 도배·장판·차양 교체·주거 보수 등 주거환경 정비



지난 4일 강진군새마을협의회(회장 강성재)와 군동면새마을협의회(회장 마재숙)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회원 12명

은 군동면 갈전 마을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낡고 부서져 위험했던 마루 보수와 깨진 유리창과 고장난 방충망 교체, 마당 잡풀 제거 등 소규모 주거 수리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군동면새마을협의회에서는 취약계층 7가구의 도배·장판 교체, 차양 교체, 기타 소규모 주거 보수 작업을 펼쳤다.

한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민관 협동으로 구성되었다.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위기가구 생활지원금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민 주도형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의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군동면새마을협의회 마재숙 회장은 “농촌 인구가 초고령화됨에 따라 독거노인으로 일상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새마을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함평교육청,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코로나19로 현장 지원 어려울 경우 비대면 지원 추진 방안 논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은 4일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2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13명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1학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결과 및 주요 현황, 2학기 사업 협의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1학기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담 및 현장 지원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언택트) 지원을 추진하여 더봄학생의 관리 및 지원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협

의하였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박수현 학부모위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해 위원이기 전에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안정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완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보살핌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교육과 지원으로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신광양라이온스클럽, 광영동 옥곡면 경로당 방역 봉사 실시

정진오 회장 “코로나 예방 도움되길”  
광양시 광영동은 신광양라이온스클럽(회장 정진오)에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광영동, 옥곡면 내 경로당을 찾아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광양라이온스클럽 정진오 회장, 회원 20여 명이 광영동, 옥곡면 내 경로당을 돌며 건물 외부는 물론 손이 자주 닿는 문고리, 내부 집기들까지 꼼

꼼하게 방역 소독했다. 신광양라이온스클럽 정진오 회장은 “방역 봉사활동이 코로나19 예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는 경로당 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돼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해중 광영동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활동에 구슬땀을 흘리신 신광양라이온스클럽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b>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b>	 <b>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b>	 <b>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b>
---	--	--